

풀란드, 肉類供給

크게 不足

세계적인 肉類過剩供給에도 불구하고 풀란드에는 육류의 공급이 크게 모자라고 있다. 肉類에 축주된 풀란드 사람들은 고기가 바닥난 푸줏간 앞에 밥상을 가리지 않고 줄을 서고 있음은 물론 곳곳에서 향의 배포가 일어나고 있다. 고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인들이며 이중에는 하루에 3弗씩 임금을 받고 줄을 서주는 사람들도 있다.

풀란드시민들은 식탁에 고기가 오르지 않으면 지난하게 느낄 만큼 고기를 必須食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국민 1인당 肉類消費量은 1970년에 53kg에서 1976년엔 70kg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아직도 풀란드 국민의 욕구 충족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肉類의 부족현상은 풀란드정부가 음식물 비절감정책의 일환으로 肉類의 공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美國, 牛乳支持價格 引上

美國農務省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77/78회계년도 후반기에 적용할 加工乳의 生產者支持價格을 100파운드당 9弗에서 9弗 43센트로 4.8% 引上調整하였다. 이 加工乳의 平均乳脂率은

3.67%인바 이를 3.5%짜리 加工乳의 價格으로 換算하면 9弗 21센트이며 韓貨로는 kg당 98원 21전으로 現行 우리나라 原乳價格 167원의 약 6할 밖에 안되는 水準이다.

美國에서는 牛乳의 生產者 支持價格을 農家購入 價格指數의 變動에 따라 年 2回 調整한다. 이번 引上은 당회계년도의 시작인 1977년 10월 1일 현재의 農家 支拂價格 指數 685가 1978年 3月



1日 現在로 718 즉 4.8% 증가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다.

日本, 農產物輸入 限界點

日本 農林省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1977년도 農家白書에서 미국이나 구라파 여러나라가 貿易逆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이 이들의 農產物을 더 輸入해 줄것을 회망하고 있으나 日本

의 農產物輸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農產物의 輸入을 增加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국제 경제에의 적응이라 는 지상파제를 해결하기 위해 農業부문이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食糧政策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시사했다.

일본의 1976년도 농산물수입 총액은 1975년도 보다 1.1% 늘어난 97億 7,700萬弗이었다.

植物性 油脂과잉 공급

세계 식물성 油脂生產은 앞으로 10년 내에 과잉공급 상태가 될 것이며 팜油는 벌써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고 美농무성이 밝혔다.

농무성의 P.R. 스미드 마케팅 담당차관보는 전국 면밀생산조합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은 세계 팜油생산이 수요보다 급격히 증가해 미국시장에서의 식용유 가격에 압력을 미칠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주요 팜油수출국들의 팜油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은행 같은 기구를 통해 차관보를 제공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미드 차관보는 말했다.